

영산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

# BOD 등 수질 개선... 습지는 절반 이상 줄어

환경부가 8일 발표한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시행 후 영산강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 구간 내 담양 습지 등 일부 습지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전

문가 자문 등을 통한 원형보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협의 의견 보고서에 영산강 사업 시행시 수질·생태계·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주문을 담았다.

## 수질 개선 얼마나 중류 권역 BOD l 당 5.4mg에서 3.9mg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영산강 사업지구 4개 중점관리권역에 대한 수질 모델링 결과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에는 영산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배출도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 예측수질을 비교해 보면 영산강 상류인 광주 2-1지점의 경우 BOD는 5.8mg/l에서 5.6mg/l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TP배출도는 0.746mg/l에서 0.185mg/l로 대폭 낮아졌다. 또 영산강 중류인 영산포-1지점의 BOD는 5.4mg/l에서 3.9mg/l로, TP배출도는 0.455mg/l에서 0.139mg/l로 BOD와 TP 배출도 모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영산강 하류인 무안 1 지점의 경우 BOD는 3.7mg/l에서 2.6mg/l로, TP배출도는 0.331mg/l에서 0.097mg/l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산강 하구인 무안 2지점의 BOD는 1.9mg/l에서 1.7mg/l로, TP배출도는 0.169mg/l에서 0.137mg/l로 나타나는 등 각 권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산강 수질 예측 모델링 결과 (단위 mg/l)

권역	중점권역 대표지점	'06년 모의수질		'12년 예측수질		
		BOD	T-P	BOD	T-P	
영산강	영산강 상류*	광주 2-1	5.8	0.746	5.6	0.185
	영산강 중류*	영산포-1	5.4	0.455	3.9	0.139
	영산강 하류*	무안1	3.7	0.331	2.6	0.097
	영산강 하구연*	무안2	1.9	0.169	1.7	0.137

\*는 중점관리 권역

■영산강 '보·어도' 설치 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기준)

구분	보명칭	어도형식		경사도		비고
		좌안	우안	좌안	우안	
영산강 (2개소)	승촌보	아이스하버식	Borland식	1:20	-	구하도에 설치
	죽산보	아이스하버식	-	1:20	-	구하도에 설치



죽산보



승촌보



영산강 사업을 통해 영산강 유역에는 '승촌보'와 '죽산보' 2개의 보(漿)가 설치된다. 사진은 '죽산보'가 설치될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인근 영산강 유역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수질관리 어떻게 준설공사 구간 최소 2km 이상 간격 유지

환경부는 공사중이나 공사 완료 이후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준설공사 시 각각의 공사구간이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구별 현황을 통한 관리함으로써 탁수(흐린 물)의 영향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

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공사 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점권역 목표수질+15mg/l)이 초과하는 경우 공사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상황과 연동하는 대응방안을 마련

해 시행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보(漿) 상류 수질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저층수 배제 시설(아랫부분의 물을 강제로 흐르게 하는 시설), 수중 폭기(공기 공급) 시설, 태양광 물순환 장치 등은 설치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 습지 보호 대책은 대체 습지 48개소 조성 생태기능 유지

영산강 사업구간에는 32곳 681만5천여㎡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중 절반 이상인 18곳 139만4천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담양 습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2.7%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1년 습지보호지역

또는 랍사르 보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송월동 습지(나주), 남산 습지(담양), 월산 보습지(광주) 등 3곳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별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하도 준설선 조정·변경 등을 통해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산강 48개소에

대체 습지 또는 신규 습지를 조성해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 정비도 1대5 이상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 시행 이후에 자연스럽게 습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가 우수한 하중도(하천 가운데 섬 형태로 생긴 퇴적 지형)는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 생태계 피해 최소화 야생동물·물고기 등 인공 서식처 제공

영산강 등 4대 강 사업구간에는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급급적 생태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공사 전 돌 무더기 등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야생동물에게 산란 및 은신

처를 제공하고,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공사 강도를 조절하고 인근에 먹이 터 등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공사 착수 시점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물고기가 다니는 어도(魚道)는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해 치어 등 작은 어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상유지공은 어도와 유사한 경사로 설치하고 자연석 등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해 조성토록 제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F1 성공 개최·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모색

## 전남도의회 '2010 F1 대회 과제와 미래비전' 토론회

전남도의회는 10일 오후 의회 초의실에서 '2010 F1(포틀러원) 대회의 과제와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F1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전략과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경기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최용석 교수가 '모터 스포츠 산업의 발전방향 및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F1경기장의 사후 활

용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갖는다. 김 교수는 이날 ▲F1 경기장 주변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단지 체계화 ▲F1 대회와 J프 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접목 등을 통한 전남 모터 스포츠 사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F1 대회 이외에 전남의 독자적인 자동차 경주대회 시리즈를 창설하고, 자동차 마니아 및 아마추어의 참여를 유도해 F1경기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들의 주제발표 후에는 김석원(해남) 전

남도의회 의원과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백승헌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F1 대회 발전 전략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종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관련산업 유치, 경기장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F1대회가 전남 서남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2010년 10월15일부터 3일간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일원에 건립중인 F1 대회 경주장에서 열리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

**50년 화학산업의 외길, OCI**

**세계 1위 지속가능 가치창조기업 선정**

OCI Chemicals logo and text: The green energy company.